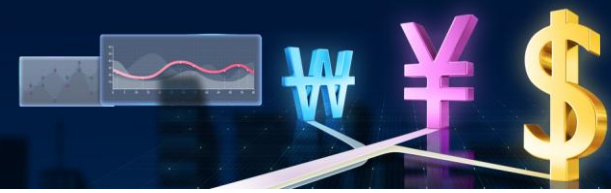


# 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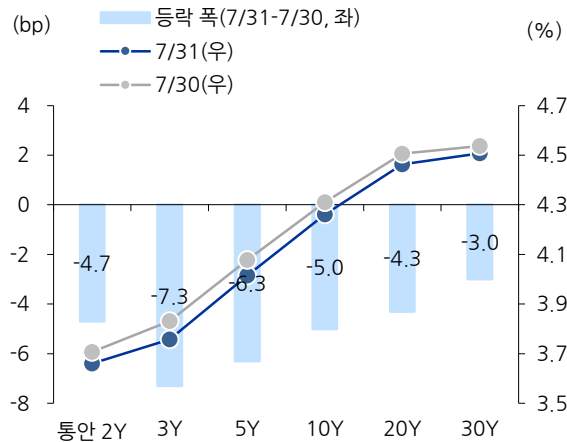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\_02)368-6149\_jnkim0526@eugenefn.com RA 차영후\_02)368-6138\_yhcha@eugenefn.com

## 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|       | 7/31일            | 1D     | 1W   | YTD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
| 국내 채권 | 한국 국고채 3년물       | 3.758% | -7.3 | -20.1 |
|       | 한국 국고채 10년물      | 4.261% | -5.0 | -18.6 |
|       | 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 | 50.3   | 48.0 | 48.8  |
| 해외 채권 | 3년 국채 선물(KTB)    | 103.23 | 21.0 | 63.0  |
|       | 10년 국채 선물(LKTB)  | 105.82 | 44.0 | 162.0 |
|       | 미국채 2년물          | 4.292% | 4.4  | -4.1  |
|       | 미국채 10년물         | 4.737% | 6.3  | 5.9   |
|       | 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 | 44.5   | 42.6 | 34.5  |
|       | 독일국채 10년물        | 3.225% | 4.8  | 2.5   |
|       | 호주국채 10년물        | 4.928% | -6.9 | -15.4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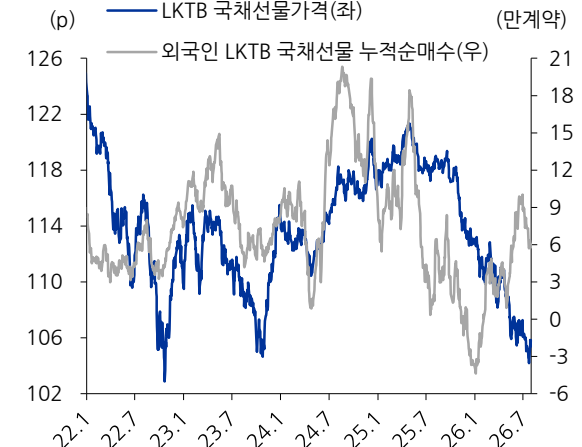
## 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## 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## 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## 국내 채권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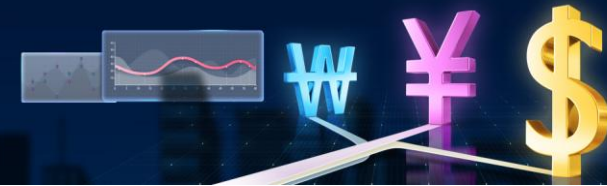
- 국내 채권시장 대폭 강세 마감. 환율 강세 및 WGBI 자금 유입 영향.
- 장중 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금리 하락세 확대. 전일 장 종료 후 공개된 8월 국채발행계획에서 초장기물 발행이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장기물 강세 나타냄.
- 한국, 일본 환율이 정책당국의 공조로 약세를 보인 것도 금리 하락에 일조. 월말 WGBI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와 이로 추정되는 자금 흐름도 강세 견인.

##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베어 스티프닝 마감. 7월 FOMC 인상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의 입장 확인 등에 영향.
- 유로존 7월 CPI가 예상에 부합했지만 근원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자 독일 등 유럽 금리 상승에 미국 금리도 상승 출발.
- 이후 7월 FOMC 당시 인상 의견을 냈던 헤맥, 로건,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발언하자 금리 상승폭 확대. 국제유가 상승세도 영향.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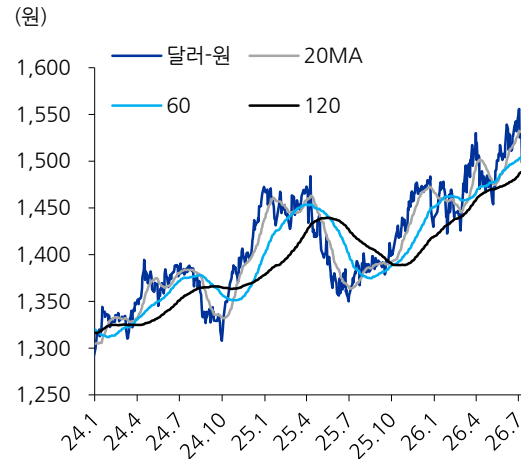


## 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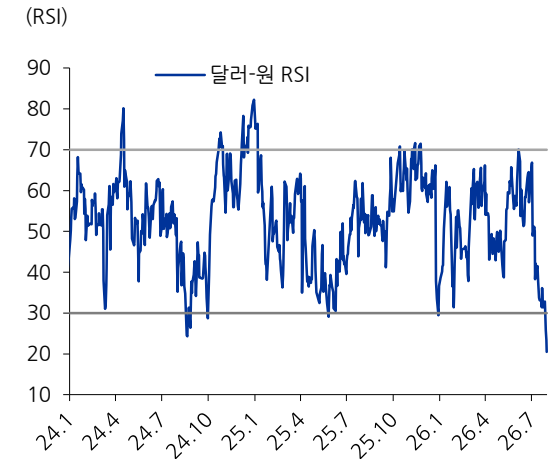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|    |             | 7/31일    | 1D    | 1W    | YTD   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환율 | 원/달러        | 1,424.00 | -0.9% | -2.9% | -1.0%  |
|    | 달러지수        | 99.81    | -0.2% | -1.6% | 1.5%   |
|    | 달러/유로       | 1.15     | 0.0%  | 1.4%  | -1.8%  |
|    | 위안/달러(역외)   | 6.75     | 0.1%  | -0.3% | -3.3%  |
|    | 엔/달러        | 157.38   | -1.4% | -4.0% | 0.5%   |
|    | 달러/파운드      | 1.35     | 0.1%  | 1.2%  | 0.1%   |
|    | 헤알/달러       | 5.08     | 0.3%  | -0.2% | -8.0%  |
| 상품 | WTI 근월물(\$) | 84.67    | 1.3%  | -5.2% | 47.5%  |
|    | 금 현물(\$)    | 4,046.84 | -1.4% | -0.2% | -6.3%  |
|    | 비트코인(\$)    | 62,630   | -3.3% | -2.4% | -28.7%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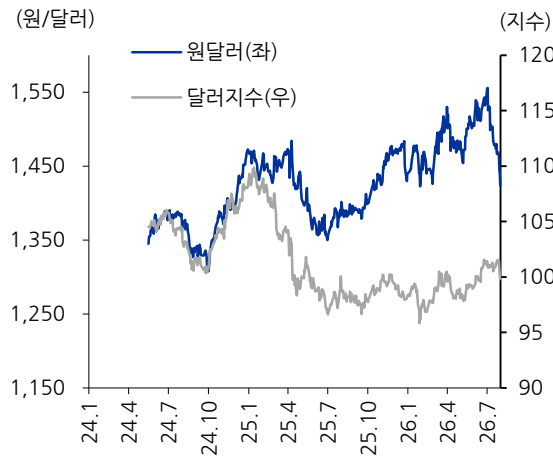
## 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## 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## 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## 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韓·日 당국 환시 개입에 -13.40원 하락한 1,424.00원에 마감(야간 1,435.50원).
- 원달러 환율은 마-일 환시 개입과, 韓 외환당국 스무딩 오퍼레이션 겹치며 7/30일 야간거래 증가 1,418원으로 낙폭 확대, 이후 7/31일 주간거래에서 일부 되돌림 나타남.
- 달러-원은 SK하이닉스 ADR 상장 자금 환전·수출업체 달러 매도와 美 7월 FOMC 위시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주간 -42.6원, 7월 들어 -125.4원 하락.
- 수출대금 환류 기대 유효하나 7월 해외주식 순매수가 46억 달러(올해 상반기 월평균 15억 달러)로 재차 확대되는 등 내국인 해외자산 선호가 중장기적 환율 상방 요인으로 존재, 또한 원달러 환율 단기 낙폭 확대된 점 고려할 때 추가 하락 여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.

##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마-일 공조 환시 개입에 하락(DXY -0.2%).
- 뉴욕 연은이 7/30일 시장 개입 전 환율을 문의하는 '레이트 체크'에 이어, 7/31일 美 재무부를 대신해 유로 매도, 엔화 매수 거래를 이례적으로 실시했다는 소식 전해짐. 이에 마-일 공조 개입 경계 확산되며 달러 하락, 엔화 급등(달러-엔 -1.4%).
- 한편 7/31일,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란 공습을 예고하며 중동 긴장감 높아졌으나, 주말 간 공격 취소를 밝히면서 리스크 완화됨.
- 달러인덱스는 예상보다 완화적이었던 美 FOMC와 당국 개입에 주간 -1.6% 하락. 마-일 환시 개입에 대한 경계 있으나 BOJ의 추가 인상 지연될 경우 엔화 강세 효과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.